

###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 “왜 단주를 돌리곤 했을까”

#### 흥선대원군의 염주

인사동의 끝자락에 위치한 안국역에 가면 사적 제 257호로 지정된 운현궁(雲峴宮)이 있다. 바로 이 곳이 원래는 흥선대원군의 사저였는데, 지금은 그 일부가 덕성여대의 교사(敎舍)로 쓰이고 있다. 조선 26대 왕인 고종이 12세까지 자라던 장소이고, 명성황후가 세자빈이 된 후 거처하던 곳이다.

소설가 금동(琴童)김동인(金東仁)이 1933년에 조선일보에 연재한 그의 대표작인 소설이 바로 이 궁의 이름을 따왔다. <운현궁의 봄>이라는 이 소설에서 흥선대원군의 일대기를 흥미진진한 사건을 번갈아 연결하면서 재미있게 윤색해서 쓴 것을 어린 시절 읽은 적이 있다.

이 곳에서 흥선군은 서원을 철폐하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세제를 개혁하는 등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금은 서울시청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되어 유물전시관을 개관하고, 고종이나 명성



평상복 입은 '흥선대원군' 영정

고의 명필이었던 정난종(1433~1489)의 글로 더욱 귀중한 종이다.

만약에 대종을 다시 절로 옮기고, 사리전을 다시 건립하고, 통

도사의 진신사리를 다시 모신다면 한국의 중심인 서울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대찰이 될 가능성이 많은 절이다. 한 때는 140명의 스님들이 거주하던 큰 절이었다니 지금 돌아보면 많이 아쉽다.

여기 소개하는 영정은 도화사 화원인 희원 이한철과 해산 유숙이 1869년에 그린 그림이다. 비단에 담채로 아름답게 그린 이 영정은 평상복차림의 이하응이 의자에 좌정하고 앉아 그림을 그리고 낙관을 찍거나 사무를 본 흔적이 있다.

크기는 133.7×67.7cm이고 보물 제 1499호로 지정되어 지금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그림이다. 이 영정이 특이한 것은 조선조에 그려진 많은 영정들과는 달리 고인의 평소 생활을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많은 지물(持物)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칼자루 없는 장검이 책상에 비스듬히 기대고, 책상 위에는 인주함과 붓, 자 명종과 찻잔, 안경과 향로 등이 있다. 여기서 유교를 국시(國是)로 한 조선의 군주로서 그가 항상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불교유물이 있다. 바로 염주다.

염주는 수주(數珠)·송주(誦珠)·주주(呪珠)라고도 하며 염불의 횟수를 기억하는 구슬들을 꿰 것이다. <목환자경>에 의하면 “번뇌를 없애고자 하면 목환자 108개를 끼워서 항상 지니되, 앉거나 걷거나 눕거나를 막론하고 불법승(佛法僧)의 명칭을 외우고 외을 때마다 목환자 하나씩을 넘겨 그 수가 많아질수록 업장이 소멸되어 더없이 안락한 과보를 얻는다”한다.

이하응 거사가 손에 쥐고 돌리곤 했던 이 단주는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춘추전국시대처럼 파란이 많았던 조선왕조의 말년을 살았던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 법구(法具)이다.



도화사 성보박물관장

# 반쪽 몸으로 귀환한 “고려 범종”

## 울산박물관 임강사 종 전시

문화재는 지나간 시간을 온 몸으로 증명해준다. 어디에 있던 지나간 시간과 역사적 정황을 설명해주는 총체적 산물이 바로 문화재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문화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겼다. 바로 울산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임강사종이 그것이다.

고려시대 만들어진 울산 임강사종은 고려 후기 일본으로 반출됐다. 초창기에는 미야자키(宮崎)현의 평등사(平等寺)에 걸려 있다 이후 오사카로 흘러 들어가 1874년 정우사 주지스님이 구입해 소장하게 된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5년 3월 미군의 폭격을 맞아 안타깝게 일부가 소실되고 말았다. 종은 머물렀던 절 이름에 따라 ‘평등사종’ ‘정우사종’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임강사종이었다.

임강사종이 고향 울산을 찾았다. 울산박물관은 내년 5월 중순까지 울산 임강사종을 전시한다. 비록 상처 입은 몸이지만 고려시대 울산 범종으로는 유일한 자료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에 있는 고려 범종 가운데 걸작으로 평가받아 국보로 지정됐다. 종의 크기는 높이 116.7cm, 지름 67.2cm, 무게 213kg이었다. 종 표면에는 고려 초기 울산의 지명인 ‘흥려부(興麗府)’와 종에 있었던 임강사, 종을 만든 사람들 이름, 제작 목적 등을 기록한 명문이 있었다. 그러나 명문 부분은 현재 사라져 버렸다.



일본으로 반출돼 2차 대전 중에 일부 파손된 임강사종(사진 왼쪽)이 고향 울산을 찾았다. 울산박물관은 내년 5월 중순까지 울산 임강사종을 전시한다. 사진 오른쪽은 정우사에 전시되고 있는 복원된 임강사종

### 고려 후기 일본으로 반출

### 우수성 인정받아 국보 지정

### 2차 세계대전 일부 소실

울산박물관 조규성 학예연구관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탁본 사진과 흑백 사진을 보더라도 우수한 점을 알 수 있으며, 잔존 부분의 금강역사상 문양도 매우 뛰어나다. 오사카 교육위원회는 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2009년 10월 복제품을 만들어 2010년 4월 정우사에 기증했다. 그 후 임강사종은 정우사에서 복제품과 함께 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전한다.

울산박물관은 재일교포 등의 도움을 얻어 올해 임강사종 실물과 함께 복원도를 전시하게 됐다. 조 학예연구관은 “종을 대어 전시하기까지 정우사 오오노(大野光輝) 주지스님의 협조와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의사 강건영 박사의 도움을 받았다. 강건영 박사는 일본에 있는 한국 범종에 대해 연구하고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임강사종을 국내에 널리 소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 박물관은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太和寺址 十二支像舍利塔) 보물 제441호도 전시한다. 이 사리탑은 1962년 태화동 반탕굴에서 발견되었으며 선덕여왕 당시 장건된 태화사와 관련

유물로 보고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태화사는 자장(慈藏)이 643년(선덕여왕 12) 당나라에서 가져온 석가여래의 진신사리 일부를 봉안했던 사찰이다. 탑신은 종 모양인데, 앞면에 감실을 설치했다. 표면에는 12간지에 나오는 열두 마리 동물을 돌출무늬로 새겼다.

지금까지 이를 선승의 탑으로 보고, 신라 하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보관하는 사리탑일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가 우세하여 2010년 12월 ‘부도’에서 ‘사리탑’이란 명칭으로 변경됐다. (052)222-8501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 “둥글고 밝은 빛 세상에 전해”

## 동성스님 선화 초대전

“둥글고 밝은 빛 동성스님 선화 초대전”이 10월 3~6일까지 수원봉녕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달마도, 천진불, 미소동자, 관음도, 나한도 등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깨달음의 자유, 청정성의 본연, 무관심의 희열 등 모든 작품에 삶과 생명의 빛나는 장엄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했다. 또한 “둥글고 밝은 빛”을 통해 부처님의 원만한 덕성과 지혜광명을 불어 넣었다.

이번 전시는 수원 봉녕사 제4회 사찰음식 대향연에 맞춰 진행됐다. 10월 3일 전시 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 동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종회의원 원학 스님, 법어사 박물관장 경선스님, 보광사 주지 중훈 스님, 봉녕사 주지 자연 스님,

학장 도해 스님, 울원장 적연 스님, 김용정, 양형진, 조기숙 교수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봉녕사 주지 자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사회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며 “이번 선화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요한 마음을 이루고 참 나를 찾는 인연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동성 스님은 1964년 통도사에 입산독도한 이후 조계종 중앙교육원, 법어사 불교전문강원, 동국대 및 동 대학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수학했다. 고천 배재식, 평보 서희환 선생으로 서법을 사사하며 운보 김기창 선생으로부터 화법을 개도 받고,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등의 불교미술과 전통불화를 습득하며 붓다의 가르침과 화두가 있는 선화를 창작했다.

1978년부터 세계 주요도심에서 개최된



동성 스님 작 '천진불'

10여회의 기획전에 초대작가로 활동해 왔다. 또 ‘한 송이 연꽃이 되어, 깨달음과 자유의 달마도, 공-다르마, 둥글고 밝은 빛’이라는 개인전 및 개인초대전 20여회를 개최하며 문화포교를 선도했다.

한편, 스님은 2013년 인도 델리대 및 몸바이대에서 선화초대전을 열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 “손으로 만다라 만들어봐요”

### 문화공간 숨도 가을 강좌 진행

불교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공간 숨도에서 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숨도는 손으로 하는 수행, 색채 만다라 만들기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 손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강연은 ▷손강연(10월 11일)·몸으로 생각하는 인간 ▷손연극(10/13)·손으로도 연극을 할 수 있다? ▷손글씨(10월 20일)·좋은 글은 손으로 읽으면 ‘다’ 좋다! ▷손공작(10월 27일)·창고 속의 친구를 구하라! ▷손만다라(11월 3일)·손으로 하는 수행, 색채 만다라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다.

수업은 문화공간 숨도 작은 강당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며 진행되며 참가비는 1일 1만원이다.

참가를 원한다면 이메일(soomdo@naver.com) 혹은 방문 접수하면 된다.

(02) 717-3535 정혜숙 기자

# 연꽃과 LED조명과의 만남! 수공예 창작 연꽃조명

생화와 흡사한 고무소재의 고급연꽃에 LED조명을 넣었습니다. 주로 법당에 부처님 좌우로 놓여지며, 재가불자님 가정에, 수행 하시는 스님법전에 놓여집니다. 고무소재의 고급 연꽃으로서 생화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며 연꽃, 연밥, 연잎, 극락조로 잘 조화된 100% 수공예 창작품입니다.

연등과는 달리 연꽃 자체에 LED조명이 커져서 신비롭고 영험함을 더해줍니다. 세속이 찌들고 더럽다 하더라도 제한물 정갈히 살고픈 불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처염상정 연꽃에 등 밝히시어 부디 성불 하십시오.



주문제작문의 010-2692-4632 / 010-9231-1192  
네이버카페 꽃과조명 (http://cafe.naver.com/flowerled)  
제휴쇼핑몰 불교TV(bin mall) / 사찰물 종로불교 / 모란불교용품

#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A/S 불독 전선 10년 불해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8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 공단연등(고리8)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 전선지초(영사용) 탈피이방성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밝은 간선지초 (LED)  
▶생생, 탐들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